



“무럭무럭 자라라” 23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철쭉나무를 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구 절반 수도권 집중...양극화 심화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65세 이상 인구 17.5% 고령화 심각
10·20대 절반 결혼·자녀 필요 없어
여가시간 평일 3.7·휴일 5.5시간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돈·정보·기업 뿐 아니라 기회까지 서울에 집중되면서 만들어진 서울공화국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 심화=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5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년 49.3%이던 수도권 인구는 2020년에는 50.2%로 절반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뒤에도, 2021년 50.4%, 2022년 50.5%로 커진 형편이다. 앞으로도 비슷하다. 2030년엔 51.4%, 2040년 52.4%, 2050년 53.0% 등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 비중은 심화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의 이상 비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과 지방 경제를 살려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방침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고령화, 인구 4명 중 한 명이 노인-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노인 인구 비중은 전남이 24.5%로 가장 높았다.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각각 38.1명, 21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다. 전남도가 최근 발표했다 '2022 전남 사회지표'에 나타난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젊은 층(25-49세)의 '탈(脫) 전남' 영향으로 118만 3000명(2021년 기준)에 머물렀다. 전년(120만3000명)보다 1.7% 줄었다. 젊은층인 25-49세 비율도 52만4000명으로 전년(54만명)보다 줄었다.
◇10·20대의 절반, 결혼해도 자녀 필요없어-통계청의 사회지표로는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도 엿보였다. 전체적으로는 65.3%가 결혼 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2.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10대의 경우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1%에 불과했고 20대 역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0%에 그쳤다.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도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4.7%에 그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지난 2021년 기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로 집계됐다. 20년 전인 2000년(27.7세)보다 5살 가까이 올라간 수준이다.
◇기대수명은 늘고 흡연·음주는 줄고-지난2021

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80.6년)보다 3.0년 증가했고 전년(83.5년)보다도 0.1년 증가했다. 202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위로, 1위인 일본에 비해 약 1.2년 낮았다.
2021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8.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5년 전보다 4.4%포인트 감소했고 음주율도 2021년 기준 53.5%로 전년보다 1.7%포인트, 5년 전보다 5.9%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기준 19세 이상 유병률은 40대가 42.9%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8.6%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3세 이상 인구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64.1%로 2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는데, 대전(70.5%) 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제주(56.9%)가 가장 낮았다. 전남엔 의대가 한 곳도 없고 분만취약지역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8.4%로 대전과 세종(69.3%)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는 58.6%로 제주, 울산(57.4%) 다음으로 낮았다.
◇얼마 벌고 얼마나 놀았나-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86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8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09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전년보다 5.1% 상승했고 물가상승률은 98년(7.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109.39로 전년보다 6.0% 상승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5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0.3시간 줄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한신협 정기총회 참석

광주·전남 유일 회원사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한국신문협회 부회장·사진)은 23일 오전 한국신문협회 '제61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발행인들은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 행사 ▲지역신문 미래경영 전략 인사이트 개최 ▲협회 산하 '디지털협

회' 설치 등 한국신문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승인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51개 신문과 2개 통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월산근린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국비 4억3000만원 들여 훼손·방치공간 생태계 복원
광주시 남구 '월산근린공원'이 생태계를 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광주시는 23일 최근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추진한 월산근린공원(6900㎡)의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태계 복원사업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의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을 말한다. 주거지역과 밀접한 월산근린공원은 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광주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신청, 국비 4억3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추진했다.
시는 이 곳에 낙엽관목 13종 5313그루, 상록 관목 5종 1612주 등을 심고 곤충호텔, 생태탐방로, 원두막 등 설치해 시민들이 생태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심 내 훼손·방치된 공간의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이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총 9개 지역 24만8000㎡에 달하는 도심 공원의 생태환경을 정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결핵예방의 날 맞아 무료검진

2021년 1만8335명 감염...고령층이 절반
전남도가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무안·남양·전남도립도서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전남' 슬로건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결핵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보건 의료기관, 국립목포병원, 대한결핵협회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결핵 퇴치를 위한 비전 영상상영, 전남도와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장 밖에는 결핵 예방 홍보물 전시, 기념사진 촬영용 포토존을 설치했고, 심의 결핵 이동검진 차량에서는 무료 결핵 검진도 이뤄졌다.
지난 2021년 결핵에 감염된 환자는 1만8335명으로 10만명당 35.7명꼴이다. 2011년 최고치(3만9557명)를 기록한 후 연평균 7.4%씩 감소 중이지만, 고령층 감염자는 전체의 5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결핵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무료 검진, 보건소 상시 무료검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등과 함께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치료비 전액 지원, 환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무료검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는 치료 기간(약 6개월) 국립목포병원 입원 등을 시행 중이다. 또 도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결핵 전수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명품 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2023 고소득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감풍, 원주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종에 최고! 대봉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짝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갹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목록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갹을농원 모욕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888로 화성로25 · 농림 312-3121-7676-91 (매주·정중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